‘네 시’의 약속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작품으로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다. 작가는 헌사에서 레옹 베르트라는 친구에게 책을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했는지 결국 타협을 한다: ‘어린 시절의 레옹에게’. 즉, 동화책의 형식이지만 실은 어른들 위한 책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쓰는 신년사인지라 잠시 현실을 벗어나 나도 이 글을 ‘어린 시절의 우리들’ 에게 쓰고자 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기 전 여러 별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첫째 별은 신하가 한 명도 없는 왕, 둘째 별은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다음은 하늘의 별들도 사업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업가, 먼 나라의 산과 강은 알고 있으나 자기 별의 지리는 모르는 지리학자 등이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로 도착한 곳이 지구라는 별의 사막이었다. 거기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게 되고 그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는다. 여우의 말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작가가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여우를 빌어서 말한 것은 여우가 갖는 꾀나 지혜로움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최근 그 책에서 한 가지 더 ‘여우’ 같은 말을 만났다: ‘네가 네 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거야’.

깃털같이 가슴을 스치면서 동시에 바위같이 가슴을 누르는 말이다. 생각해 보라, 오늘 누가 네 시에 나를 찾아오겠다고 한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 흥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겠는가. 이 짧은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우선, 네 시에 누가 온다는 믿음이 나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비 예보를 듣고 우산 챙기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돈을 갖다 주고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은 다시 찾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사소한 일도 하기 어려워진다. 의심과 걱정에 눌리고, 방비와 방어를 위해 모든 내적 외적 자원을 소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인 셈이다.

또, 네 시의 약속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세 시와 네 시 사이의 1시간은 희망으로 채워져 있다. 도래하지 않은 것,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 이외의 짐승은 소망이라는 의식 활동이 없다. 배 고플 때 즉시 먹어야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없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치유와 회복’에 의하면 희망은 생명을 지지하고 부흥시키는 의식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지지해 준다. 반대로, 희망의 부재는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도 저하시킨다.

마지막으로, 약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너’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무인도에서는 사랑이 생겨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사랑은 ‘너’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그를 향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를 향할 때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영혼의 자유를 갖게 된다. 사랑이 사람을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일 때, 그 사랑은 진리 그 자체이다. 사랑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너’를 잃어버릴 때이다. 사랑이 그가 아닌 ‘나’를 향한 것이 될 때 자아라는 올무에 걸려들고 사람은 자유를 상실한다. 그런 사랑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하고 권태로우며 억압적인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사랑은 진지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항상 있을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이라 했는데 이 짧은 여우의 말속에 이 영원한 세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사람에게 온통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찬 시기가 있다. 바로 아이였을 때이다. 인격의 완성은 아이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진정한 성숙은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시의 약속을 세 시부터 기다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나 희망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너’를 필요로 한다. 신하가 한 명도 없는 왕, 별들 마저 달러로 보이는 사업가, 지식은 많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학자,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자기의 별에 홀로 있는 사람들이다. 혼자 만의 별에서 자기 세계에 갇힌 존재, 이것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른들의 딱한 모습들이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거쳐 도착한 지구에는 111명의 왕,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천 1백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작가의 말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해가 가면서 나이는 먹으나 아이다와 지지 못하는 모든 어른들을 향하여 하는 은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엄정한 시험이다. 2019년이 우리에게 묻는다: 애가 될 것이냐, 아이가 될 것이냐.